

## 중국의 가스선 수주 & 가스 추진선 확산

### 코멘터리

#### 다수의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만..

① 클락슨 수주 업데이트에,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총 8척 VLCC 수주와 현대미포조선(비나신)의 MR탱커 6척 수주가 잡혔습니다. 현대미포조선의 6척은 5월말 알려진 Tragifugra의 MR탱커 6척으로 해석됩니다. 아무튼 현대중공업그룹의 탱커 수주 러쉬는 강합니다.

#### 그러나, 기대했던 LNG선 4척과 VLGC 4척을 중국에 뺏겼습니다.

②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노리던 Yamal의 일반LNG선 4척의 용선발주는 중국 후동중화로 결정되었습니다.  
③ 싱가포르 Petredec은 VLGC 2척+옵선2척을 중국 장난조선소에 발주했습니다. Petredec은 2013년~2015년 현대중공업에 14척의 VLGC를 발주한 단골 고객입니다.

#### LNG-Fuel 엔진 채택이 확산됩니다.

④ 말레이시아 AET가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아프라막스 탱커에 DF엔진을 적용을 고민해왔는데, 최종적으로 4척 중 2척에 DF엔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로써 신조선가는 15% 정도 늘어나지만 병커C유와 LNG 스프레드가 유지될 경우 8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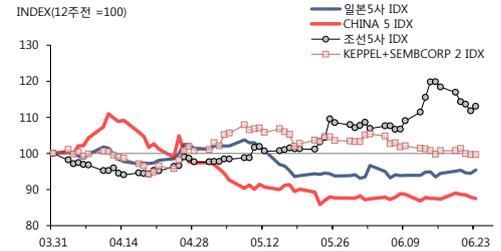
⑤ 반값게도 최근 2만TEU 컨테이너선 6+3척 발주를 준비 중인 CMA-CGM도 LNG-Fuel 엔진 채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신조선가는 \$150m~\$160m에서 DF 엔진을 선택할 경우 \$20m 정도 늘어난다고 전합니다.

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장기적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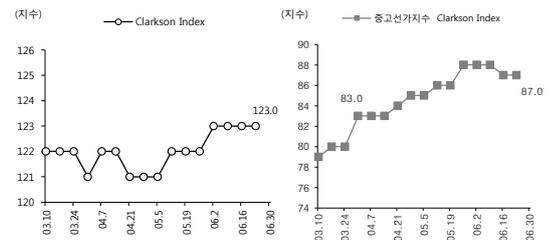
1) DF엔진 채택은 현대중공업, 두산엔진에 직접적으로 유리한 기술의 변화이며, 이와 함께 할 2) LNGBV 확산은 현대미포조선, 한진중공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의미합니다.

### 대표 차트

▶ 한/중/일/싱 추가 추세: 한국시장 강세에 한국 조선도 아웃퍼폼



▶ 신조선가지수, 중고선가지수 모두 포함: 파나마스 벌크만 상승



### 주시 뉴스

※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

#### ▶ LNG 추진 엔진 개화기

- △ CMA CGM: 20,000TEU에 LNG-Fuel 적용 고민
- △ AET, 아프라막스 탱커 2척 DF 엔진 채택 확정

#### ▶ 한국의 실주, 중국의 가스선 수주...

- ▼ Yamal 일반 LNG선 4척: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수주 실패, MOL+중국 후동중화 승리
- ▼ Petredec, 중국 Jiangnan SY에 VLGC 4척 발주

### ASP & 실적관련(국내외)

#### △ Clarksons 신조선가지수 123p, 중고선가지수 87p로 모두 포함

- 선가지수는 모두 포함했고, 선종별로는 파나마스 벌크선만 중고선가와 신조선가가 함께 상승

#### △ DSME, Dong Energy의 Hejre 플랫폼 취소에서 \$50m 보상

- 건조 취소된 Hejre 플랫폼 공사와 관련한 국제소송에서 승리해 \$50m 수령
- 2012년 \$560m 플랫폼이 발주되었고, 디자인과 상부 구조의 건조 뒀으므로 DSME는 \$200m을 수주
- 건조 중에 2016년3월 Dong Energy는 인도 지연을 비난하며 계약을 취소했고, 이후 DSME는 설비 해체비용을 Dong과 Technip에 청구한 것임
- DSME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80%의 대금을 수령했고, 해당 플랫폼과 관련해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

외신 보도들

- 뉴스/FACT > 당사 의견

▶ 해양

▷ Golar, Delfin FLNG 사업 참여

- Golar LNG는 GOM의 Delfin FLNG 프로젝트의 joint development agreement를 체결
- FID는 2018년, 첫 가스는 2021년 수출 예정
- Delfint은 최대 3기의 FLNG를 통해 총 13MTPA를 수출할 예정
- Golar는 Mark II FLNG 디자인을 제안 vs 라이벌 Hoegh가 2015년 FEED 계약을 따내기도 했지만, Hoegh는 FSRU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포기
- Golar는 첫 3MTPA FLNG 타임을 싱가포르 Keppel에서 건조 중인데 3분기 수령 예정
- 또한 2호선으로 Ophir의 Fortuna FLNG도 건조 중

△ Chiyoda의 FLNG, ABS 선급 취득

- 일본 Chiyoda는 ABS(American Bureau of Shipping)으로부터 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Power Plant Concept에 대한 승인을 취득
- 기술 중 LNG선을 중소형 LNG Power Plant로 전환/개조하는 기술도 포함

▽ 독일 Rembrandt-Vermeer FEED 입찰 중지

- 개발 경제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전함

▶ LNG Bunkering

△ CMA CGM: 20,000TEU에 LNG-Fuel 적용 고민

- 20,000teu 컨테이너선 6척+옵션3척 발주(14억\$)를 진행 중인 CMA CGM 은
- 기존 엔진과 함께 LNG-Fuel도 고민 중: LNG 채택시 1) 병커링 인프라, 2) 가스 탱크 장착에 따른 컨테이너 탑재 공간 축소, 3) 향후 LNG와 병커C유 가격 등을 고민
- CMA CGM은 2020년부터의 Marine Emissions Regulation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고민 중인 선사 중 하나
- : 얼마전 Total과 LNG bunker tanker design과 Fueling supply solution 합동 연구를 위한 3년 MOU도 체결
- 해당 선박의 신조선가는 \$150m~\$160m로 예상되는 가운데, LNG Fuel을 채택할 경우 \$20m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

△ AET,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 DF 엔진 채택 확정

- AET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할 4척의 아프리카막스 탱커 중 2척에 Dual-Fuel propulsion system 적용을 결정
- DF 엔진을 채택할 경우, 기존보다 선박건조가격이 15% 늘어나지만, 8년내에 투자비를 회수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
- AET의 모회사 Petronas와 한국, 일본의 이해관계자들은 Sea LNG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향후 LNG 병커링 기술 및 비용개선을 도모
- DF 시스템 확산에 있어서 비싼 초기투자비용이 문제인데 DF 시스템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40%나 하락했고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

▶ 기타

△ VLGC 발주 재개 기대감

- 2016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VLGC 발주는 공백기였는데
- 2015년 35척, 2016년 45척이 인도되며 VLGC 선대가 20%나 성장했기 때문
- 그러나 현재 VLGC 잔고는 25척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이고, 현재 선대에서 20년 이상 VLGC가 40척이나됨
- 물동은 중동보다는 미국발 → 아시아 수입 물량이 주도하는 상황

△ MSI 분석) VLCC 발주 러쉬 당분간 계속 될듯

- 현재까지 9백만dwt의 탱커 발주로 과잉 우려감이 있지만, LOI 상태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계약까지 포함할 경우 탱커 발주는 14백만dwt에 이를 것으로 분석
- 잔고/선대가 13.7%로 과하지 않고, \$80m 안팎의 신조선가는 너무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진단
- : 여전히 시장에 가격이 싼 Tier II 슬롯도 한정적이지만 구할 수 있다고 함
- 또한 중고선 보다는 BWTS와 SOx 준비가 되어있는 신조가 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판단

한국 조선업 수주설

▼ Clarkson 신규 수주 업데이트

①△ Knutsen, 스페인 Endesa LNG 용선 기반으로 HHI에 LNG선 발주

- 노르웨이 Knutsen은 현대중공업에 180k-cbm ME-GI LNG선을 발주: 1척 분계약 + 옵션 보유  
- 사업초기 Endesa는 3척의 LNG선을 용선 추진한 바 있음: 미국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에서 2.25MTPA 수입

②Unknown→Hyundai Samho HI, TK(158k) 4척

③Unknown→Hyundai HI (Ulsan), TK(158k) 4척

알려지지 않은 선주 2곳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총 8척의 VLCC를 발주함, 아래의 현대미포조선의 수주건과 함께 Tragifugra와 같은 프로젝트인지 싶음

④Unknown→Hyundai Vinashin, PC선(46k) 6척

선주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, 5월말에 알려진 Tragifugra의 현대미포조선의 MR탱커 6척 발주로 추정

▼ 신조 발주설(뉴스 단계)

△ Pleiades → 현대미포조선, MR탱커 2척+옵션2척

- 올해 1월 외신에서 알려진, MR2 2척과 옵션 2척을 현대미포조선과 계약한 것으로 뒤늦게 Pleiades가 확인  
- 2018년 인도물이며 신조선가는 \$33.5m  
>> 클락슨 수주나, 당사의 수주POOL에서 잡은 적이 없는 수주건입니다!

△ MISC, Statoil 용선 기반 → SHI, 서틀탱커 발주 확인

- MISC는 Statoil과 5년 또는 7년 용선계약한 것으로 알려짐: 용선계약규모 \$200m~\$275m  
- MISC는 서틀탱커 2척을 삼성중공업에 발주: 2019년인도

▼ Yamal 일반 LNG선 4척: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수주 실패, MOL+중국 후동중화 승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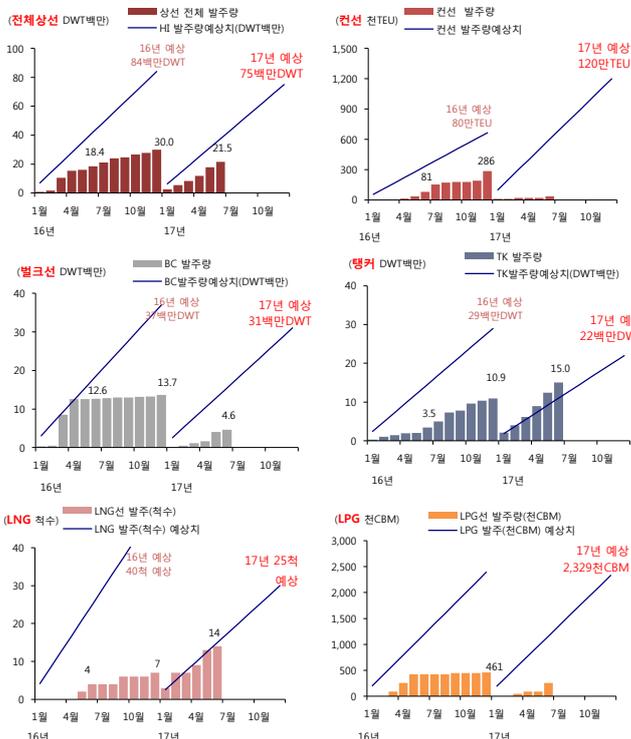
- 북유럽에서 NSR 운송에 필요한 Yamal의 쇠빙LNG선 15척 외의 일반 LNG선 11척 중 마지막 4척에 대해서  
- 일본 MOL과 NYK가 최종 경합 중 결국 MOL이 15년+알파 용선계약을 따냈고  
- 중국 후동중화에 4척을 건조하기로 결정: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때 부각된 바 있음  
>> 안타깝습니다.

▼ 오랫동안 VLGC 발주 5척, 모두 중국과 일본으로

- 싱가포르 Petredec은 84k-cbm VLGC 2척+옵션 2척을 중국 Jiangnan SY에 발주(2Q~3Q19 인도)했고  
- 일본 Kumiai Navigation도 82k-cbm을 자국 KHI(Kawawaki Heavy Industries)에 발주: \$2.5m 추가해 Scrubber 장착, 1Q20 인도  
- 신조선가는 Petredec의 경우 \$62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짐: 1년반만의 VLGC 발주인데 2015년말 마지막 Naftomar → Jiangnan SY 계약은 \$72.5m였음  
>> LPG선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70%~80%를 과점하는 시장인데, 안타깝습니다.

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

▶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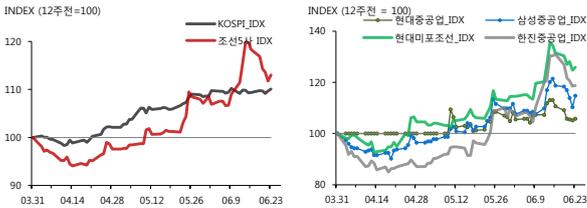


▶ 신조 발주 내역 - 한/중/일 주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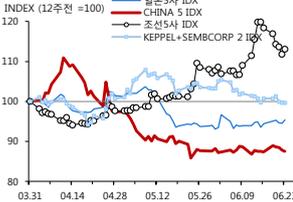
국가	조선사	계약일	발주 국가	발주처	Type	크기	인도	척수
<b>17년05월4주</b>								
일본	Kanagawa Zosen	17.5.23	일본	Mitsui O.S.K. Lines	OFF-기타		2019	1
<b>17년05월5주</b>								
BIG6	Hyundai Mipo	17.5.30	유럽	CLdN Cobelfret	RORO	5k Lane m.	2019	2
		17.5.26	유럽	Union Maritime Ltd	PTK	50k DWT	2018	2
		17.5.8	중국	Cido Shipping	PTK	50k DWT	2020~2021	2
		17.4.24	유럽	Chartworld Shpg.	PTK	50k DWT	2018	2
		17.4.24	유럽	FLEX LNG	LNG	173k cu.m.	2019	2
Daewoo (DSME)	Hyundai HI (Ulsan)	17.5.26	중국	Tai Chong Cheang	TK	319k DWT	2019	2
		Unknown	Enesel S.A.	TK	300k DWT	2018	1	
한국	Sungdong SB	17.4.24	유럽	Kyklades Maritime	TK	115k DWT	2018~2019	5
중국	Huangpu Wenchong	17.5.26	중국	Binzhou Port	OFF-SUPP	10k GT	2019	1
	Shanghai Shipyard	17.5.31	러시아/CIS	Platano Eesti OU	BULK	108k DWT	2019	2
중국	Jiangsu New Hantong	17.5.1	유럽	Oldendorff Carriers	BULK	81k DWT	2018~2019	2
	CSC Jinling Shipyard	17.5.18	유럽	Transocean Maritime	BULK	82k DWT	2019	2
	Nantong Xiangyu	17.5.1	유럽	TB Marine Hamburg	PTK	22k DWT	2019	2
일본	JMU Ariake Shipyard	17.5.1	일본	NS United KK	BULK	400k DWT	2020	1
<b>17년06월1주</b>								
N/A								
<b>17년06월2주</b>								
N/A								
<b>17년06월3주</b>								
BIG6	Hyundai Vinashin	17.6.1	Unknown	Unknown	PTK	46k DWT	2018~2019	6
	Hyundai Samho HI	17.6.1	Unknown	Unknown	TK	158k DWT	2018~2019	4
	Hyundai HI (Ulsan)	17.6.22	유럽	Knutsen OAS Shipping	LNG	180k cu.m.	2020	1
중국	Jiangnan SY Group	17.6.1	Unknown	Unknown	TK	158k DWT	2018~2019	4
		17.6.19	유럽	Petredec	LPG	84k cu.m.	2019	2
중국	New Times SB	17.6.1	Unknown	Unknown	PTK	115k DWT	2018~2019	4
					TK	158k DWT	2019	4
CSC Jinling Shipyard	17.6.16	유럽	DFDS	RORO	7k Lane m.	2020	2	

Peer Group 등 Inde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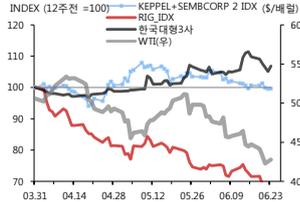
▶ 한국 조선 대형3사, 중형3사 INDEX



▶ 조선업 한중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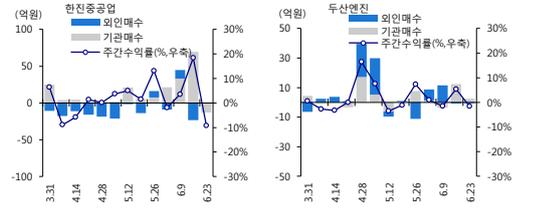


▶ 유가 VS 리그선주,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



조선 수급

▶ 조선6사 수급



국내 보도

▶ 공통 보도

▷ 中 코스코, 홍콩선사 OOCL 인수 갑론을박

<https://goo.gl/3WXeYW>

홍콩선사 OOCL 매각을 두고 설왕설래: 중국 코스코가 인수를 앞두고 있다는 외신보도와 "사실 무근"이라는 OOCL은 반박 연초 중국 코스코와 프랑스 CMA CGM, 대만 에버그린이 OOCL의 잠재적인 입찰선사로 나섰다고 알려졌으나 당시 선사들은 모두 협상을 부인한 바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홍콩 선사를 해외 선사에게 매각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코스코의 OOCL 인수를 가장 유력하다고 봄 최근 코스코는 차이나쉬핑과 합병했고 CMA CGM은 APL을, 하파그로이드는 UASC, 머스크라인은 함부르크수드를 각자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움

▶ 현대중공업 보도

▷ 군산조선소 7월 1일 폐쇄 "시간이 없다"

<https://goo.gl/wvwyAR>

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극심한 수주난에도 1조6천억원의 이익을 냈고, 올해는 작년보다 배 수주물량이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도 없이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확정 >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

△ 현대미포조선, 현대로보틱스 96만여주 블록딜 매각

<https://goo.gl/E6gzRt>

계열회사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96만540주(16.63%)를 시간 외 대량매매(블록딜)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 처분금액은 3천756억원 가량: 신규 순환출자 구조 해소 목적 > 3,552억원 현금유입이 있었습니다.

△ 현대중, 조선업 최초 실물 규모 LNG선 실증설비 완비

<https://goo.gl/SGCBtN>

최근 조선업계 최초로 울산 본사에 고객들이 LNG선 핵심설비들의 성능과 안전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'LNG선 종합 실증설비'를 구축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25MW급 LNG연료공급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한데 이어, 2015년 85MW급 실증설비를 추가 자체 개발한 LNG연료공급시스템(제품명: Hi-GAS)의 성능 입증을 하며, 실제 수주로도 이어짐

△ IMM PE, 현대삼호중 '무차입' 투자 유력

<https://goo.gl/v5fWwS>

IMM PE가 현대삼호중공업이 속한 조선산업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렸지만, 업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 투자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차입 인수구조를 짠 것으로 분석 기업공개(IPO) 무산시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아 거래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몰린 당초 3000억 원 투자를 결정했던 IMM PE는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현대삼호중공업과 투자 규모를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

△ 현대중, 임원 58명 승진 인사...조선해양 부문은 10% 감축

<https://goo.gl/7Gxu9n>

현대중공업그룹은 21일 상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부사장 2명 등 58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 일감 감소가 예상되는 조선-해양 관련 부문 임원은 10% 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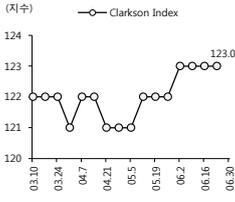
△ '포스코-현대중' 10년 백기사 협정 완전 종료

<https://goo.gl/3RHCrD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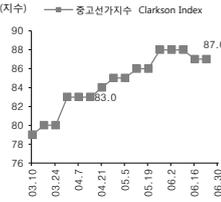
포스코가 2007년 매입한 현대중공업 주식 전량을 매각: 2007년부터 유지해 온 '상호 지분 보유 협정'은 완전 종결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장 마감 후 현대중공업 주식 110만 1247주(지분율 1.94%) 매각을 위한 수요 예측 이날 증가(18만 원)와 할인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외 대량매매(블록딜)로 포스코가 확보하는 현금 1900억 원 이상 포스코와 현대중공업그룹은 2007년 4월 상호 지분 보유 협정: 포스코를 적대적 인수합병(M&A)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'백기사 협약' 포스코는 2007년 4월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현대중공업 주식 147만 7000주를 취득 & 현대삼호중공업은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87만 2000주, 43만 6000주 총 130만 8000주의 포스코 주식 장내 매입 현대미포조선도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 주식 87만 2000주를 사들임 2014년 11월 현대미포조선이 포스코 주식 전량(87만 2000주)을 블록딜로 매각: 이어 2015년 9월 현대삼호중공업도 130만 8000주를 모두 정리

## 신조선가 & 중고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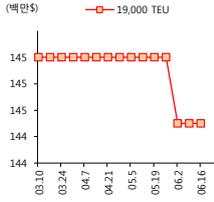
▶신조선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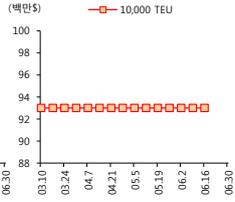
▶중고선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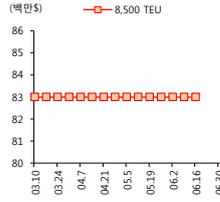
▶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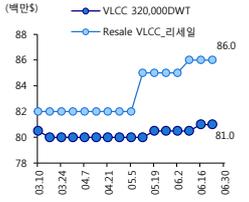
▶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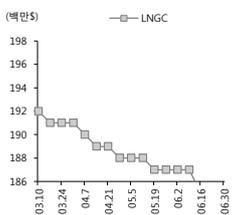
▶컨테이너선 신조선가 - 8,500 TE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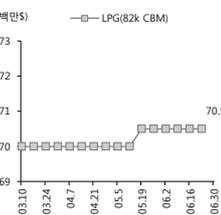
▶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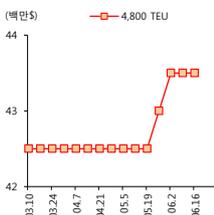
▶LNG선 - 신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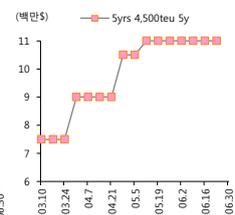
▶LPG선 - 신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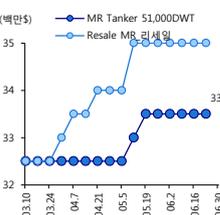
▶컨테이너선 - 신조선가 4,800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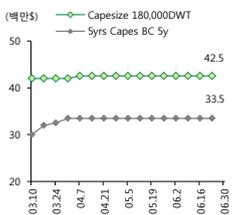
▶컨테이너선 - 중고선가 4,500teu



▶MR탱커 신조vs리세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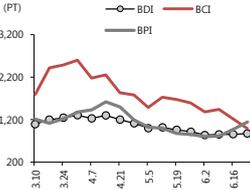


▶Capesize 벌크선 - 신조, 중고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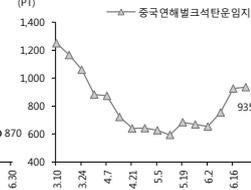


## 운임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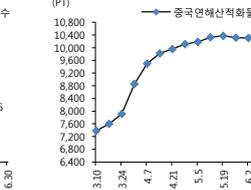
▶벌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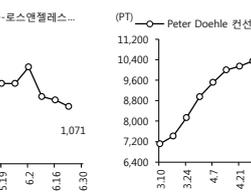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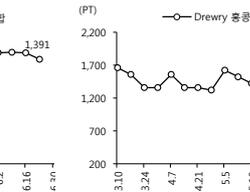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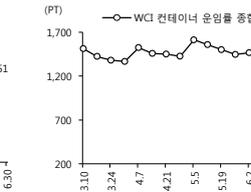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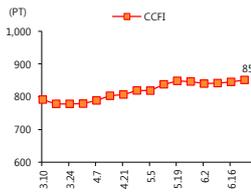
▶중국



▶탱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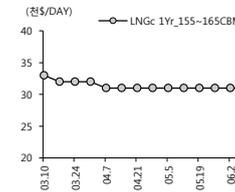


▶컨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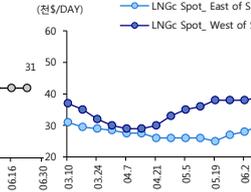


## 용선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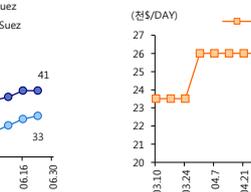
▶LNG선 1yr 용선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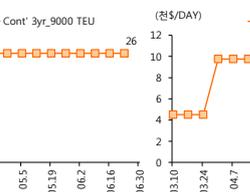
▶LNG선 SPO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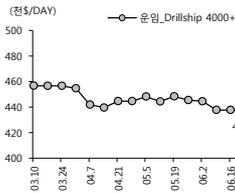
▶컨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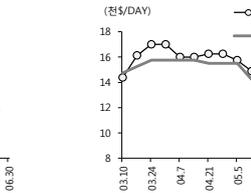
▶컨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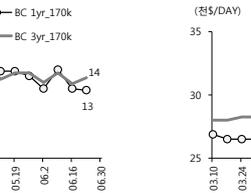
▶드릴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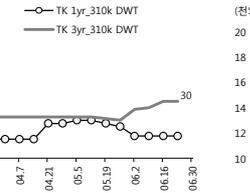
▶벌크선 - 케이프



▶탱커 - VLC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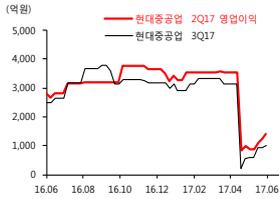


▶탱커 - M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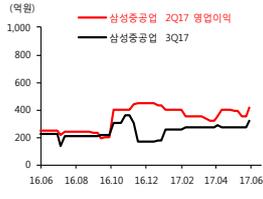


## Consensu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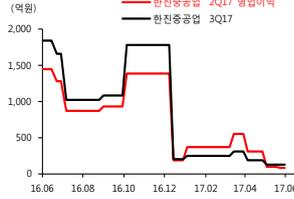
### ▶ 현대중공업



### ▶ 삼성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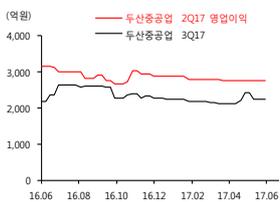
### ▶ 한진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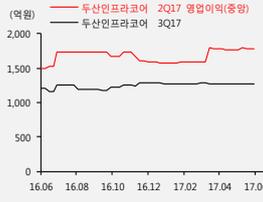
### ▶ 현대미포조선



### ▶ 두산중공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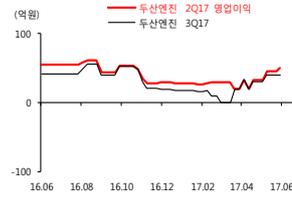
### ▶ 두산인프라코어



### ▶ 두산밥캣



### ▶ 두산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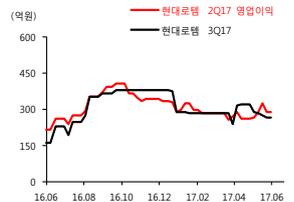
### ▶ 현대일렉트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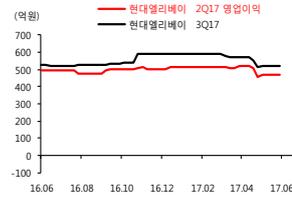
### ▶ 현대건설기계



### ▶ 현대로템



### ▶ 현대엘리베이터



### ▶ LS산전



### ▶ 성광벤드



### ▶ 태광



### ▶ 하이록코리아



출처: Dataguide

### ▶ 조선/기계 EPS,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

그룹	종목	2017 EPS(원)								Chang(%)		VALUATION		
		다섯달전	네달전	세달전	두달전	17.05.27	17.06.03	17.06.10	17.06.17	17.06.23	2달전 대비	4주전 대비	2017PER	증가
조선	현대중공업	11,100	11,213	11,206	13,173	4,946	4,946	5,797	6,038	6,211	-5.3%	26%	28.1	174,500
	삼성중공업	268	235	260	281	313	298	298	299	285	2%	-9%	45.0	12,850
	현대미포조선	5,911	5,390	5,627	3,878	3,750	4,054	4,232	4,308	4,776	23%	27%	23.3	111,500
	한진중공업	978	454	454	108	-203	-203	-211	-269	-269	적전	적지	-17.1	4,610
두산	두산중공업	1,997	1,966	1,739	1,490	1,433	1,511	1,511	1,511	1,454	-2%	1%	15.1	21,900
	두산인프라코어	888	909	778	785	813	811	798	798	798	2%	-2%	10.6	8,490
	두산엔진	57	170	188	409	172	178	178	178	178	-57%	3%	24.2	4,300
	기계	현대건설기계	0	0	0	0	25,906	27,546	27,395	28,411	28,411			12.2
	현대일렉트릭	0	0	0	0	26,837	26,837	27,046	27,046	27,046			11.6	312,500
	LS산전	3,555	3,382	3,385	3,593	3,563	3,575	3,664	3,664	3,673	2%	3%	15.1	55,500
	현대엘리베이터	5,775	5,703	5,703	5,580	5,387	5,325	5,325	5,326	5,326	-5%	-1%	11.5	61,200
방산	현대로템	690	692	756	687	645	656	650	638	639	-7%	-1%	33.1	21,150
	한국항공우주	3,165	2,646	2,619	2,560	2,503	2,503	2,503	2,496	2,496	-2%	0%	23.5	58,700
	한화테크윈	2,921	2,653	2,417	2,249	2,266	2,255	2,255	2,232	2,232	-1%	-1%	20.3	45,400
	LIG넥스원	4,509	3,917	3,848	3,875	3,768	3,733	3,733	3,921	3,921	1%	4%	19.2	75,200
피팅	성광벤드	215	198	106	-27	-83	-83	-83	-83	-83	적지	적지	-123.1	10,250
	태광	223	206	189	189	189	189	189	189	189	0%	0%	49.8	9,390
	하이록코리아	1,961	1,888	1,910	1,913	1,909	1,909	1,909	1,888	1,888	-1%	-1%	13.3	25,2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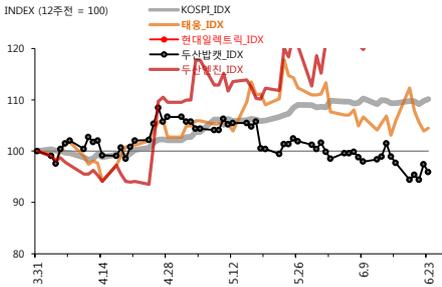
그룹	종목	2017 BPS(원)								ROE		VALUATION		
		다섯달전	네달전	세달전	두달전	17.05.27	17.06.03	17.06.10	17.06.17	17.06.23	2017	2018	2017 PBR	
조선	현대중공업	236,989	233,823	231,775	309,552	209,808	209,808	212,155	210,808	213,100	3%	2%	0.8	
	삼성중공업	17,487	17,381	17,225	17,300	18,596	18,763	18,763	18,771	18,788	2%	2%	0.7	
	현대미포조선	112,373	109,658	108,677	109,721	113,674	112,189	112,406	113,062	113,175	4%	3%	1.0	
	한진중공업	15,317	11,120	11,120	11,076	8,806	8,806	8,796	8,453	8,453	-3%	2%	0.5	
두산	두산중공업	33,530	33,074	31,937	31,093	31,446	31,005	31,005	31,005	30,703	5%	7%	0.7	
	두산인프라코어	11,523	11,369	10,800	10,565	10,409	10,572	10,514	10,514	10,514	8%	9%	0.8	
	두산엔진	8,678	7,882	7,763	7,700	7,857	7,877	7,877	7,877	7,877	2%	2%	0.5	
	기계	현대건설기계	0	0	0	0	233,248	234,645	231,368	231,679	231,679	12%	13%	1.5
	현대일렉트릭	0	0	0	0	232,775	232,775	232,450	232,450	232,450	12%	12%	1.3	
	LS산전	38,849	38,873	38,865	39,211	39,138	39,138	39,138	39,138	38,940	9%	10%	0.0	
	현대엘리베이터	37,047	38,058	38,876	38,291	37,757	37,757	37,757	37,757	37,757	14%	14%	1.6	
	현대로템	16,764	16,972	17,125	17,049	17,061	17,085	17,079	17,059	17,059	4%	5%	1.2	
방산	한국항공우주	16,947	16,625	16,591	16,469	16,307	16,307	16,307	16,307	16,307	15%	17%	3.6	
	한화테크윈	47,896	47,208	48,838	46,958	45,433	45,802	45,802	45,707	45,707	5%	6%	1.0	
	LIG넥스원	32,275	31,536	31,343	31,559	31,472	31,402	31,402	31,728	31,728	12%	15%	2.4	
피팅	성광벤드	16,617	16,603	16,496	16,529	16,512	16,554	16,554	16,554	16,554	-1%	2%	0.6	
	태광	16,850	16,850	16,850	16,850	16,850	16,850	16,850	16,850	16,850	1%	2%	0.6	
	하이록코리아	23,422	23,495	23,868	24,035	24,001	24,001	24,001	23,970	23,970	8%	8%	1.1	

출처: Dataguide

키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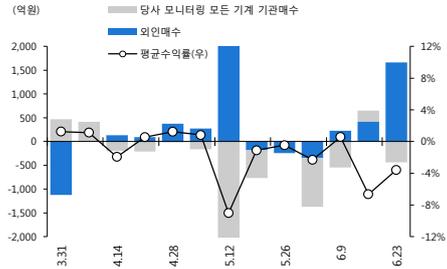
당사 기계 선호주 vs. 시장

▶ 당사 기계 선호주



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

▶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



기계 업종 뉴스

두산기계3사 등

▶ 文대통령 "고리 1호기 영구정지, 안전한 대한민국 대전환"

<https://goo.gl/3MmQVs>

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념하며 "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.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"이라고 강조  
날 오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

▶ 신고리원전 5·6호기 사업비 집행 부풀리기 '의혹'

<https://goo.gl/gcXSGR>

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한 매몰비용 중 신고리 원전 5,6호기 사업비 집행액 1조5,252억원 중 일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 
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실이 한수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...  
... 지난 4월 기준으로 시공 및 종합설계, 용역 등 기집행된 직간접비는 총 1조1,978억여원  
나머지 집행액 약 3,000억원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, 이주 보상금,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, 인쇄 등 간접비로 지출  
시공 대비공사 항목 2,362억원에 포함된 상생협력 사업금은 해당 부처인 건설처에서 고리본부로 위임된 금액으로 ...  
...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반면 한수원은 1조5,000억원 매몰비용을 주장하면서 이 비용을 포함

△ '초초임계압 발전소'는 30년 전 대비 유해물질 85% 줄여

<https://goo.gl/wGRuLk>

30년 전 1세대 화력발전소 대비 올해 짓고 있는 3세대 화력발전소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85%나 줄어  
과거엔 석탄을 많이 넣어 증기의 압력과 온도를 높였지만 이젠 보일러 자체 기술로 해결  
:석탄 사용량을 감소시켜 미세먼지 원인인 유해물질 배출도 줄이는 원리의 '초초임계압(Ultra Super Critical)' 발전소

▶ 원전에 '울고' 신재생에 '웃고'...두산중공업 '싱싱생생'

<https://goo.gl/kYNvW1>

두산중공업은 원자력화력 발전 주기기 업체인 만큼 탈원전 정책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  
VS. 반면 두산중공업의 풍력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수혜가 예상  
두산중공업은 최악의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매출이 예상치보다 감소할 것  
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3GW, 육상풍력 3GW 등 총 16GW의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  
현재 3MW 풍력발전기로는 5300개, 5MW 모델로는 3200개가 설치돼야 하는 대규모 공사  
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풍력 공급실적 1위(공급용량 78MW, 점유율 38.8%, 설치기수 26기) 업체  
현재 대규모 풍력 단지 개발은 '서남해 해상풍력'이 유일: 총 10조원을 투자해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 부안군과 위도 남동쪽 해상에  
△실증 △시범 △확산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약 2.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
지난달부터 1단계로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WND: 두산중공업이 단독으로 3MW 풍력발전기를 20기 공급  
두산중공업은 최근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5.5MW 급 해상풍력발전 기술을 인수했다. 대규모 단지에 적합한 대형 풍력발전 모델도 확보한 셈

△ 두산밥캣, 중국서 소형 건설기계 생산 개시

<https://goo.gl/JvJoaB>

20일 중국에서 소형 건설기계 생산을 시작  
중국 쑤저우(蘇州)에서 처음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과 신흥시장에 맞춰 개발된 ...  
... 밥캣 하위 브랜드 '어스포스(Earthforce)'의 '스키드 스티어 로더(Skid Steer Loader-네 바퀴 굴삭기) S18, S16' 두 가지  
핵심 성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들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, 조달해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두산밥캣의 설명  
두산밥캣 관계자는 "현재 미국, 프랑스, 체코, 인도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데, 이번 중국 생산 개시로 5개국에서 10개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됐다"고 설명

## 현대 기계

### △ 현대로템, 이집트 카이로 3호선 공급계약

<https://goo.gl/YFJeAg>

이집트 카이로터널청과 '카이로 3호선 32편성'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  
계약 금액은 4천457억원으로 작년 연결매출액의 14.9%에 해당하는 규모

### △ 현대엘리베이터, 신용등급 'BBB'→'A-' 상향조정

<https://goo.gl/8ERnWo>

BBB0(부정적)에서 A-(안정적)으로 상향: 기존 대비 2단계 높아진 'A-'  
등급 상향 이유로 △2010년 이후 41~45% 수준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 
△채산성이 높은 유지보수 부분의 실적 비중 증가로 우수한 수준의 영업수익성 유지  
△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에 기반한 재무 안정성 유지 등을 꼽음

### ▷ '부정적' 뎀 현대로템, 공모채 발행 추진

<https://goo.gl/FBa8Sc>

현대로템(A)이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으로 회복한 후 처음으로, 8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준비  
트랜치는 2년물과 4년물로 나눠 각각 500억 원, 300억 원씩 발행할 계획이다. 수요예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. 발행은 내달 7일  
이번에 마련하는 자금을 운영자금과 회사채 상환에 쓸 계획이다. 현대로템은 오는 9월 1000억 원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음

## 한진중공업

### △ 한진중공업, 953억원 규모 고성 하이화력 탈황설비 수주

<https://goo.gl/eLgScx>

계약금액은 이 회사의 작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3.39%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1년 4월까지  
> 두산중공업의 건설 중인 고성하이에는 계속 가는 듯 합니다. 강릉안인은 취소 가능성이 높구요. 그렇습니다..

### △ 한진중, 수빅조선소에 채권 569억원 출자전환

<https://goo.gl/ThWsCJ>

수빅조선소의 자본금 증가 없이 주식발행초과금(APIC) 증가 방식으로 출자전환  
한진중공업은 지난 3월 수빅조선소의 미회수 상사채권 2464억원을 출자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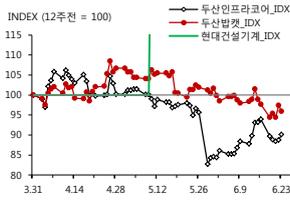
### △ 한진중공업, 658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

<https://goo.gl/zqSjWz>

응암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658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

## 건설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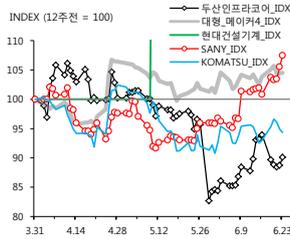
### ▶ 한국시장 상장 3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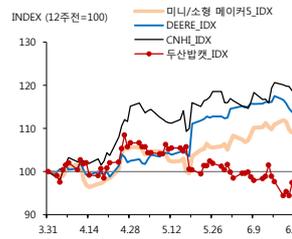
### ▶ 대형 vs. 미니/소형 vs. 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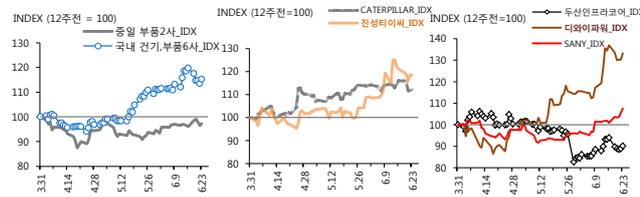
### ▶ 대형 안에서: 두산, 현중, 사니, 고마즈



### ▶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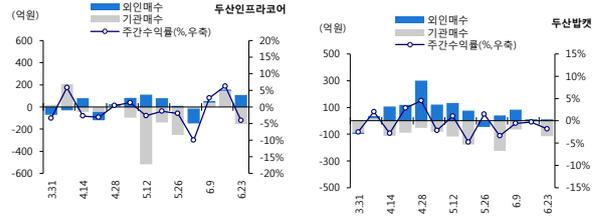


### ▶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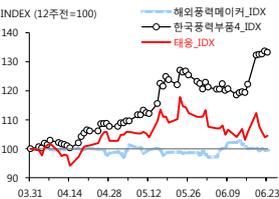
## 건설장비 수급

### ▶ 건설장비 부품



## 풍력

### ▶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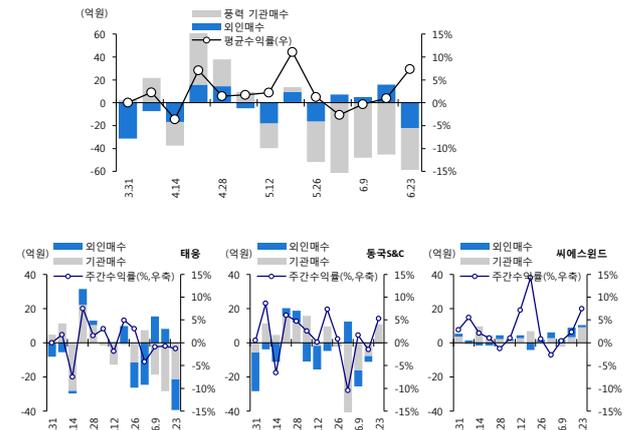


### ▶ 한국 풍력부품5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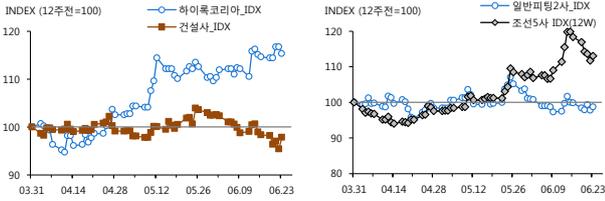
## 풍력 수급

### ▶ 풍력부품4사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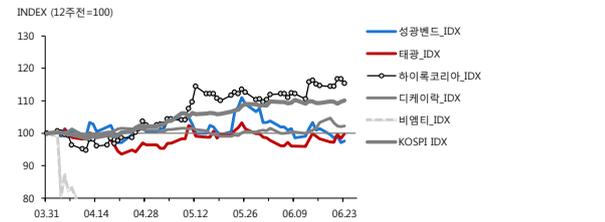


## 피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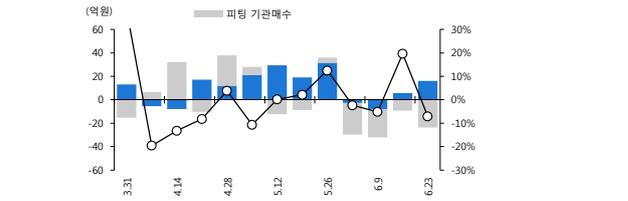
### ▶ 피팅 VS 전방1 건설



### ▶ 피팅 및 밸브사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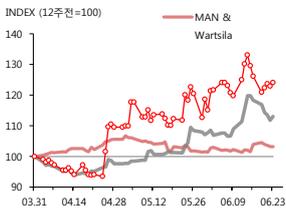


## 피팅업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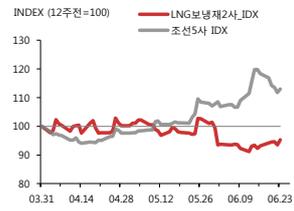


## 조선기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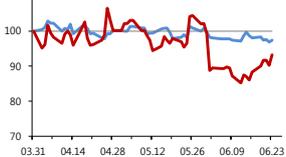
### ▶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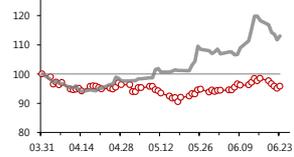
### ▶ 엔진3사



### ▶ 한국카본 vs 동성화인텍



### ▶ 조선기자재17사 vs 조선5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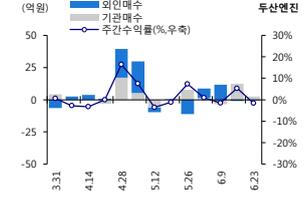


## 조선기자재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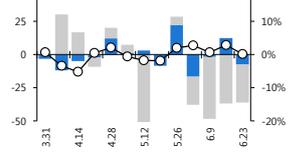
### ▶ 보냉제 2사



### ▶ 두산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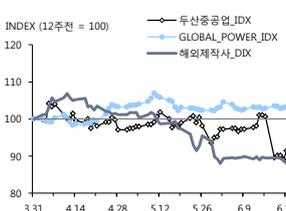


### ▶ 조선기자재(엔진기자재 포함) 기관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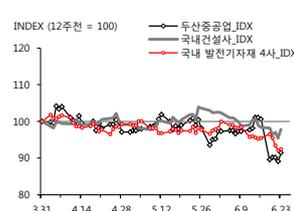


## 발전 및 발전기자재

### ▶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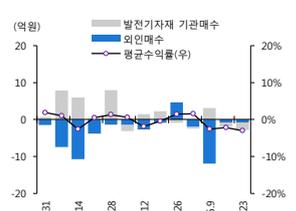


### ▶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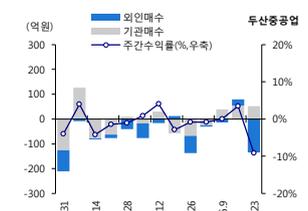


## 발전업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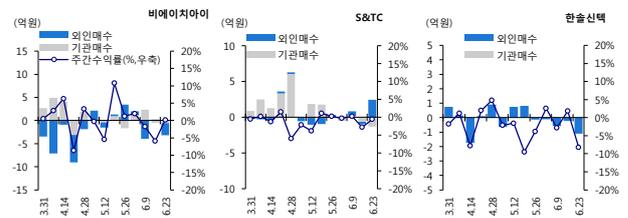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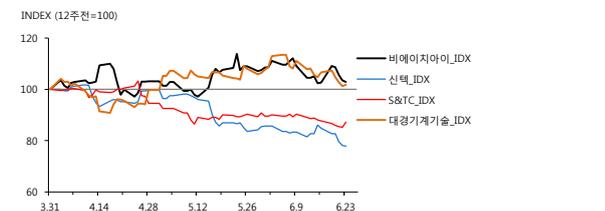
### ▶ 발전기자재5사(두산중공업 제외)



### ▶ 두산중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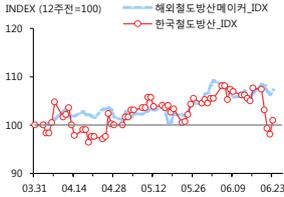


### ▶ 발전기자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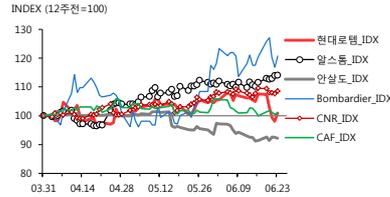


## 철도/승강기

### ▶ 철도 vs Global Pe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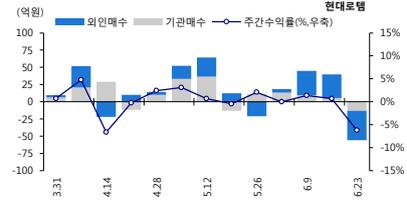


### ▶ 철도 vs Global Peer 개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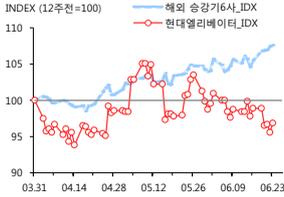


## 철도/엘리베이터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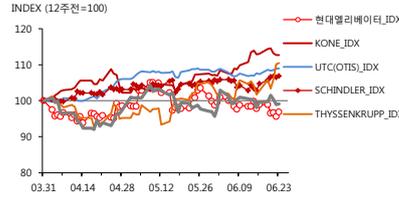
### ▶ 현대로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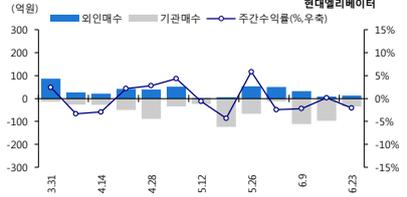
### ▶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



### ▶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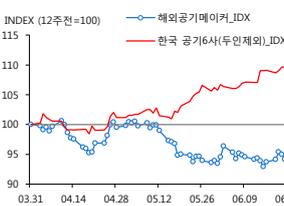


### ▶ 현대엘리베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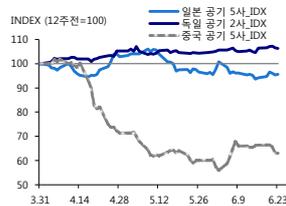


## 공작기계

### ▶ 두산인프라~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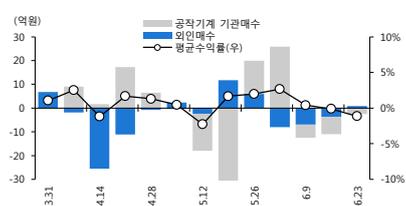


### ▶ Global Peer - 지역별



## 공기 수급

### ▶ 공작기계 부품 수급



- ▶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최광식, 원민석)
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.(2014년5월12일부터 적용)
    - Buy(매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    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 ~ -15% 내외
    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  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    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###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-03-31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조건 비율(%)	87.3 %	12.7 %	-